

1,025개의 감정을 가졌던  
거대한 한 마리의 개

# 윤석남과 김혜순을만나다

이따금 인터뷰라는 것이 주사 맞는 일처럼 두려울 때가 있다. 적절한 이에게 양보해도 되련만, 나에게 꼭 필요한 백신이 오면 그러지 못한다. 그러다 이번엔 꼭 한 번 맞아야지, 했던 주사를 한꺼번에 두 대나 맞게 되었다 미처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개인전을 선보이는 윤석남과의 인터뷰는 사실, 올 초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꼬박 5년 동안 천 마리가 넘는 개들을 나무로 만들었다니, 일단 작업 자체가 압도적이지 않은가. 달마다 방문하여 그 과정을 촬영하고 싶었으나 방해될 것이 분명해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인터뷰 날짜를 확정지을 즈음, 욕심을 조금 부렸다. 그의 작품세계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절친한 인물을 인터뷰에 초대할 것, 며칠 뒤, 답이 왔다. 시인 김혜순, 마침 내 가방에는 시인의 근작 《당신의 첫》이 들어 있었다. '환상의 조합이구나' 하며 두근두근 신이 났지만 막상 인터뷰 날짜가 닥치자 난데없는 액뎀이 도졌다. 생각해보니 볼 주사가 두 대인 것이다. 무릇 번뇌는 욕심에서 비롯되나니.

몇 번의 통화로 물어 물어 도착한 수원원의 작업실 입구에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얼마 전 집을 나간 친구 때문에 상심에 빠졌다고 한다. 그 무엇에도 관심 없다는 듯한 표정이 안쓰러웠다.







검남색 앞치마를 두른 작가와 검은 투피스를 입은 시인은 이미 당도해 있었다. 작업실 안쪽 후미진 곳에, 그곳을 제외하고는 온통 나무로 만든 개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아니란다. 2층으로 연결된 철물 계단을 오르자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 수백 마리의 유기견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보았다. 조용히 경계하는 개, 모든 것을 체념한 개, 호기심이 약간 발동한 개, 더위에 지친 개 그리고 외면하는 개. 그들의 눈으로부터 어떤 감정이 북적하게 배를 밀치며 들어온다. '킹~' 하고 짖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예술가와의 만남은 이래서 어렵다. 음미할 겨를 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니까. 그러나 가다가 길을 잃으면 시인이 나를 구원하리라. 이야기는 2003년 10월, 일민미술관에서 <늘어나다>전을 하고 있을 당시 신문에 난 작은 기사에서 시작되었다. 이애신이라는 할머니가 1,025마리의 유기견을 홀로 돌보고 있다는 보도였다. 순식간에 마음을 굳힌 그녀는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이 작업에 착수했다. 이듬해 봄부터 겨울까지 꼬박 1년 동안 개를 그렸다.

이 우직한 데생 훈련은 개의 아나토미를 익히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그렇게 시작하여 장장 5년이 걸렸지만 반드시 1,025마리여야 한다는 당신의 첫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변한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천스물다섯 마리의 현현顯現에 대한 고집을 버렸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만든 개들은 실재實在에 가깝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얼굴만 있는 개, 먹으로 그린 개 등 보다 다양한 형상의 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에는 눈동자를 그려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에 윤석남은 한국의 인물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세한 것까지 그리는 얼굴에 비해 옷과 몸의 윤곽은 선 하나로 끝내는 방식. 스펀지 하나로 아찔하게 하면서도 여백을 통해 숨을 탁 쉬게 하는 미덕을 좋아한다고 했다.

형체도, 종도, 색채도, 심지어 형상까지도 흐려지는 것을 두고 김혜순은 사라짐 혹은 비움의 작업이라고 말했다. 버려진 것들이 버려지는 작업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 이른바 동양적 부재, 절대 없음의 서양적 부재가 아니라 없음을 통해 있음이 획득한다.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작품'으로 몸을 바





꾸는 순간이다. 따라서 1에서 1,025까지 제작번호가 매겨진 이 수많은 개들은 결국 거대한 한 마리다. <빛의 파종>전에서 선보인 999개의 작품과는 달리 전시 자체가 하나의 작품인 것이다. 쇠하고 가진 것 없는 여자가 천스물다섯 마리의 버려진 개들을 끌어안고 살 듯, 어마어마한 슬픔과 외로움을 함께 견디며 품어주듯.

언젠가 윤석남은 말했다.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운명이고 힘이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존재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 작가는 온몸으로 작업을 하고, 시인은 죽을 것처럼 시를 쓴다. 개에게 마음을 낸 사람은 개를 기르고, 친구를 잃은 개는 오랫동안 누워 슬퍼한다. 그리고 기자는 바쁜 사람들을 대신하여 더 바쁜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병들면 안 된다고 미리 주사도 놔주는 고마운 밥벌이. 그 덕으로 오늘도 사람 노릇 하며 살았다. 늦은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김혜순의 시 '서울, 코라'가 언뜻 언뜻 펼쳐지고 있었다. ♣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없이》展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아르코미술관  
문의 02-760-4724  
<http://arkoartcenter.or.kr>



#### 서울, 코라

산이 경경 짓니가  
산이 나를 따라 온다

산이 새끼를 낳는다.  
산이 산을 할낀다.  
산이 새끼들에게 젖을 물린다  
산이 애정하게 새끼들을 다 버린다  
어린 산들이 백주 대낮에 꼬미한다. 악취가 난다  
산이 미로 속의 개메처럼 불려다닌다

산이 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목덜미를 쓰다듬자 몸을 부르르 떤다  
목덜미에 줄이 묶인 산이 끌려간다  
산이 철장 속에 갇힌다. 맞는다. 끌어제안다.  
죽는다

산이 통을 먹는다. 시신을 먹는다  
산이, 육창 가득한 산이 눈에 불을 켜고 달겨든다  
산이, 머리에 흰 눈을 얹은 산이 온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갖기

고 목놓아 온다  
산이 산을 붙어뜯고 씹는다  
산이, 큰 산이 제 꼬리를 물고 빙빙 돈다

불려다니는 산을 세국의 군대가 박멸한다  
삼아남은 산이, 산이, 산이, 산을 넘어 달아난다  
아직도 달아난다

산이, 산을 벗어버리고 심은 산이 두 손을 모으고, 모든 두 손을 저 먼 산을 향해 뻗치더니 이마에 대고,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다시 한번 저 먼 산을 바라보고 팔꿈치로 염구리에 붙인 다음, 오른쪽 무릎을 꿇고, 양손을 땅바닥에 대더니, 왼쪽 무릎을 마저 꿇고, 모든 두 손을 땅바닥에 붙여 힘껏 멀리 밀어 보낸 다음, 온 몸을 땅에 밀착시킨다. 그리고 온다. 이것을 세 거름에 한 번씩 반복하면서, 산이 산을 돈다.

여성의 몸을 바탕으로 낯설고도 속도감 있는 상상력을 보여주는 김혜순은 1966년 울진에서 태어났다.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달배를 피우는 시제'로 데뷔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불쌍한 사랑 기계》, 《한 잔의 붉은 거울》 등 다수의 시집을 출간했다. 김수영문학상, 현대시작품상, 소설시문학상, 미당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